

“표준소고”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
행정사무관 이덕웅



진나라 '진시황'

진나라 진시황은 중국 통일 후 우선 법치주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사람의 귀천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률도 일종의 표준화이다. 기원전 221년에는 곧바로 도량형을 통일하였고, 진나라의 화폐를 전국으로

통용시켰는데, 이 두 가지

통일은 향후 중국 산업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위해 문자의 통일도 이루었는데, 언어는 동일 민족을 판가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진나라가 중국 역사상 최초로 민족적 일체감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당시 남군과 북군의 승패 변수가 다름 아닌 '소총표준화'였다. 개인화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했던 당시 상황으로보아 소총의 성능과 효율성은 전쟁승리에 거의 절대적인 변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군은 호환성이 있는 '표준소총'으로 전투에 나섰고, 남군은 각기 다른 기술자의 손길을 거친 전통적인 소총으로 맞섰다. 현대전과 달리 육탄전 양상을 띤 당시 전투에서 소총은 파손되

거나 고장나기 일쑤였다. 호환성이 없었던 남군의 소총은 부품이 고장날 경우 다른 총기의 부품으로 대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전사상 가장 치열했던 남북전쟁은 사실상 '표준소총'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이다. 이후 미국에서 '표준'은 소총생산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으로 확산되었으며, 결국 표준화가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발판이 되었다고 본다.

현재 우리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가간 경쟁과 격변하는 경제환경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국제무역환경이 바뀌고,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함께 경쟁우위의 요소들이 바뀌는 지식기반경제, 글로벌경제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WTO체제 출범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경과 시장장벽의 제거 또는 완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지역주의의 확산, 전략적 제휴 및 M&A 등에 따른 국가·기업간 집단경쟁 등과 같은 시장외적인 요인들도 같이 어우러지면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창출·확산·활용 여부가 각 경제주체와 국가의 경쟁력 및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는 아직 국내적으로 체력을 충분히 비축하지 못했으면서도 밖으로는 국

제무대에서 경쟁국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이러한 지식, 정보, 창의성 등이 존중되는 신경제의 도래는 유형자산은 부족하나 뛰어난 인적자원을 보유한 우리에게 앞으로 세계경제 환경변화의 대응여부에 따라 도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지금 세계는 국제표준에 의한 하나의 시장으로 급변함에 따라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국가기술이전 및 진흥법 제정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립표준기술원(NIST)의 총괄조정 및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표준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EU는 ISO 세계표준을 유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적극 활용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세계표준 제정과 병행함으로써 시장선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던 화장품 제조기준이 법률에 의해 표준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품질이 향상되었다. 화장품만을 가지고 별도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화장품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기능성 화장품제도는 샤넬, 장콕, 크리스찬, 디오르 등 내로라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들도 따라올 수 없는 국산 화장품

의 독보적인 영역을 확보해준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IT분야에서 핵심 사업군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국내기업은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등 표준화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편, 우리 정부도 표준제정·보급체계 효율화, 국제표준화 활동강화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표준화 및 전략적인 표준화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펼쳐지는

국제표준전쟁에는 민.관이 따로 없으며, 최근 세계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표준화를 위한 민.관의 지원활동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국제표준 채택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자 생존을 위한 유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정보산업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회사의 제품과 관련된 표준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따라 잡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부도 신기술 및 신산업의 등장이 빈번해지고 기술진입장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국제화를 뒷받침하는 정책방향과 기술간의 융합에 따른 정책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